



미 증시, 파월의장 기자회견 이후 급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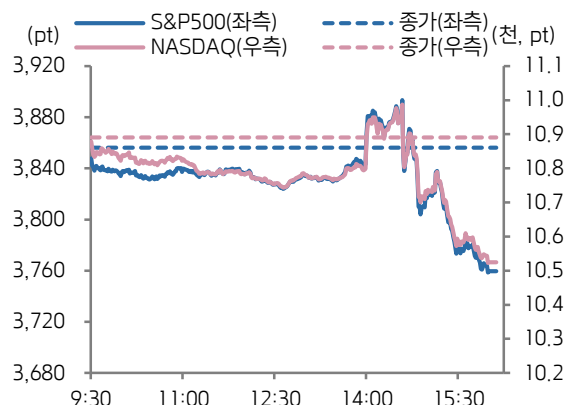
2 일(수) 미국 증시는 시장 예상대로 11 월 FOMC 75bp 인상이 단행되자 장중 급등하기도 했으나, 이후 파월의장 연설에서 최종 기준금리 상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여파로 미 국내금리 상승, 달러인덱스 상승 등 투자심리 위축되며 하락 전환 마감 (다우 -1.55%, S&P500 -2.5%, 나스닥 -3.36%).

11 월 FOMC 에서 4 연속 75bp 인상을 단행, 기준금리 목표치는 연 3.75%~4.00%로 결정되며 2008 년 1 월 이후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서고 한국과의 금리차도 1.00%p 로 확대. 연준은 성명에서 고용은 견조, 인플레이션은 상승했다고 평가하며 "인플레이션은 식품·에너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가격 압박과 관련한 수급 불균형을 반영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누적된 긴축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해석하며 긍정적으로 반응. 그러나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의 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하며 12 월 인상폭 축소 가능성에 힘을 싣는 듯 했으나, "금리 인상 중단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 미 금리 선물 시장은 최종 금리가 연 5.05%에 도달할 가능성을 반영.

10월 ADP 민간고용은 전월대비 23.9만명(예상 18.5만명, 전월 19.2만명) 증가하며 예상치 상회. 제조업 등 생산 부문 고용은 감소했으나 레저 및 접객 부문에서 고용자수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해당 부문의 임금 상승률 역시 전월대비 11.2% 증가. 집계측은 고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으며, 금리에 민감한 상품제조 부문은 고용이 후퇴하는 등 연준이 주도하는 수요파괴는 노동시장의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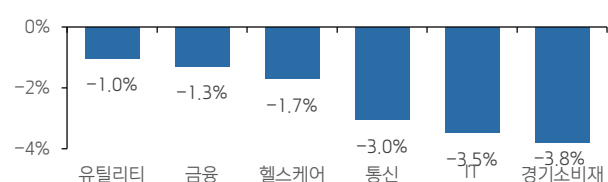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유틸리티(-1%), 금융(-1.3%), 헬스케어(-1.7%)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작았고, 경기소비재(-3.8%), IT(-3.5%), 통신(-3%)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컸음. 알파벳(-3.87%), 아마존(-4.82%), 메타(-4.89%) 등 대형 기술주들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약세. 특히 애플(-3.73%)은 아이폰 주력 생산지인 중국 정저우시를 7일간 폐쇄한다는 소식에 하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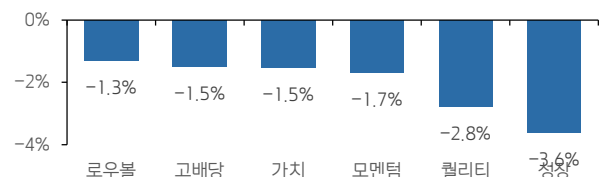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759.69	-2.5%	USD/KRW	1,417.82	+0.04%
NASDAQ	10,524.80	-3.36%	달러 지수	112.11	+0.56%
다우	32,147.76	-1.55%	EUR/USD	.98	-0.01%
VIX	25.86	+0.19%	USD/CNH	7.34	-0.04%
러셀 2000	1,789.14	-3.36%	USD/JPY	147.74	-0.11%
필라. 반도체	2,328.47	-3.0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094.43	-3.15%	국고채 3년	4.080	+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4.135	-0.1bp
Eurostoxx50	3,622.01	-0.79%	미국 국채 2년	4.620	+7.5bp
MSCI 전세계 지수	578.22	-1.57%	미국 국채 10년	4.101	+5.9bp
MSCI DM 지수	2,499.79	-1.8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867.58	+2.29%	WTI	90	+1.84%
MSCI 한국 ETF	51.74	-1.84%	금	1650	+0.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8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1.4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42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11 월 FOMC 가 남긴 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부진한 가이드선 제시에 따른 쉐어링의 시간외 주가 급락이 국내 IT 주에 미치는 영향 3. 카카오, 롯데칠성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1 월 FOMC 결과 발표 직후 급등했던 미국 증시가 이내 하락 반전하게 된 배경은 크게 1) 예상했던 수준의 정책 결과(75bp 인상 + 12 월 속도조절 시사)에 따른 재료 소멸 인식, 2) 연준의 기대감 차단 작업이 지속될 것이라는 부담감의 재생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

(1)에 해당하는 정책 속도조절 기대감은 지난 10 월 중순 이후 약 2 주에 걸친 증시 반등의 메인 동력이었던 상황. 시장 특성 상 재료를 선반영하는 경향이 강하며 실제 FOMC 에서 연준의 성명서와 파월의장의 기자회견 상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음을 감안 시, 재료 소멸 인식이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2)에 해당하는 기대감 차단 작업이 시장이 앞으로도 안고 가야할 숙제이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어느 특정 시점에 연준의 스탠스 전환(속도조절, 인상중단, 금리인하 등)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면서 위험자산이 빠르게 반등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존재. 그 때 마다 연준은 위험자산 선호심리의 급격한 개선이 유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재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a) 지난 잭슨홀 미팅 때처럼 노골적으로 차단하거나, b) 시장에 모호성을 제공해 정책 불확실성을 남겨 놓는 두 가지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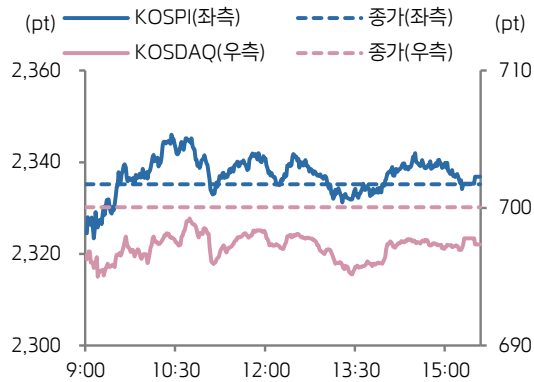
11 월 FOMC 는 후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임. 실제 금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향후 회의에서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속도에 관한 문제는 이전보다 덜 중요해졌다는 입장을 표명. 그러면서도 최종금리 수준은 기존 예상(9 월 FOMC 점도표상 최종금리 4.6%)보다 더 높은 곳에서 형성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제약적인 고금리 환경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해졌음을 시사한 상황(속도보다는 레벨과 기간 문제).

결국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기대감 차단 작업이라는 숙제가 언제 끝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며, 그 시기는 최소 12 월 FOMC 까지 가야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 11 월 FOMC 이후 12 월 FOMC 까지 그 사이에 두 번의 CPI 지표, 두 번의 고용지표를 맞이해야 하며, 그 내용들에 따라 12 월 FOMC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연준이 금번 회의에서 모호성을 시장에 던진 것도, 그들 역시 데이터 의존적으로 움직이며 12 월 FOMC 까지 상기 CPI, 고용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연준 긴축, 인플레이션 등 기존 악재에 대한 일정부분 내성이 생겼으며,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이나 기술적으로 연저점 테스트를 다시 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 다만, 최종금리 레벨의 가시성을 확보하려면 12 월 FOMC 까지 봐야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이 수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주식 비중 축소 자체는 크지 않으나, 연말까지 변동성에 대비해 헷지차원에서 방어주 혹은 배당주 포지션을 일정부분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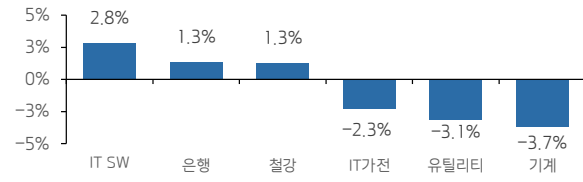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11 월 FOMC 경계심리, 2 차전지 관련 주 차익실현 물량에도 외국인 순매수 속 카카오뱅크 등 일부기업 호실적 등으로 혼조세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0.4%). 금일에는 11 월 FOMC 이후의 연준 정책 불확실성 재확대 속 테슬라, 아마존 등 빅테크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급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한 장 마감 후 쉐어링(-4.1%)이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인한 수요약화 문제로 예상보다 부진한 가이드선을 제시함에 따라 시간외에서 6%대 내외의 주가 급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국내 관련 업종 투자심리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 유인, 중국 내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외국인 수급 여건이 우호적이며, 또 미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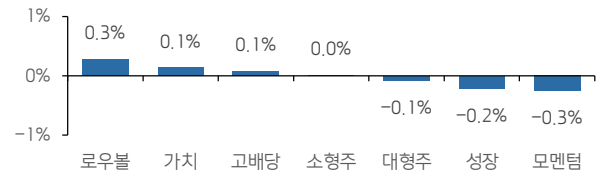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